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25〉 음악가 정율성과 광주 동구·남구·전남 화순

“전진! 전진! 전진!  
우리의 대오는 태양을 따라 나간다.  
조국의 대지 위에 섰다! 민족의 희망을  
믿고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중에서)

# 대륙 변화시킨 ‘정율성 선율’ 유커 매료시킬 ‘정율성 흔적’

1990년 9월 22일. 북경의 하늘은 다소 흐렸다. 중국 기상청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11회 북경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던 날이었다. 강우 확률은 높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비는 내리지 않았다. (비구름대에 인공강우실험을 했다는 보도는 소수의 사람만 아는 극비였다.)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메인스타디움은 열기로 가득했다. 마침내 개회식 선언이 이어졌다. 익숙한 음악이 스타디움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떠나 할 것 없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절제와 비장미가 느껴지는 리듬이 군중을 하나로 묶었다. 그것은 마치 중화(中華)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명징한 징표로 보였다.

개막식 서곡은 다름 아닌 군가였다. 중국인민해방군가. 항일전쟁 때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였던 팔로군이 부르던 노래였다. 그들은 항일의 기개와 구국의 정신을 그렇게 스포츠를 매개로 선 보였다. 국내외 국외를 넘나드는 노래의 역동성은 항일(抗日)이라는 시대성이 낳은 결실이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만든 이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정위칭’으로 불리는 이가 작곡자였다. 정율성(鄭律成·1914~1976). 조선인이었지만 그는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는 낯선 음악가였다. 그에 비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현대음악의 3대 작곡가로 꼽힐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그 정율성의 고향이 빛고을이다.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의 고향이 광주라는 사실은 ‘미묘한’ 느낌을 환기했다. 광주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공간성과 광주 정신으로 기호화되는 역사성 때문일지 모르나.

정율성의 생가는 불로동에 있다. 생물학적인 태생지가 광주 동구이지만 그의 유년과 청소년기를 지내었던 곳은 화순 능주와 남구 양림동이다. 정율성은 세 살 때 화순 능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보통학교를 다녔다. 이후 아홉 살 때는 다시 광주 동구로 이사해 송일중학교를 다녔으며,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추억을 쌓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곳만을 그의 ‘유적지’로 제한하는 것은 그의 예술을 하나의 시각에 가둬버리는 편협한 결과를 낳을 뿐

이다.

정율성은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일제에 의한 강제 합병이 이뤄진 지 4년이 지난 즈음이었다. 그의 부친 정해업(鄭海業)은 민족 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자식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이력에서 짐작할 수 있다. 정해업의 민족의식에 근거한 자식 교육과 무관치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광주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기관인 수피아여중고의 ‘수피아 90년사’에는 정해업이 1910년대, 수피아여학교 교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정해업보다 앞선 수피아여학교의 초기 교사명단에는 그의 처남인 최흥중(崔興中)의 이름도 들어 있다. 뒷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 욕망을 버린다는 뜻에서 오방(五放)선생으로

남경과 상해를 오가며 항일 전선의 대열에 나섰던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공부를 시작했다. 음악 공부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조국의 독립이었다. 그의 본명 ‘부은’이 ‘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다. ‘아름다운 선율로 민족의 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은 그래서 숭고하고 아름답다.

정율성의 노래 가운데 ‘팔로군행진곡’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던 곡이 있다. 바로 ‘연안송’이다. 정율성이 24세에 작곡했던 이 곡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항일의 의지를 굳게 새웠던 노래다. 한 사람의 음악가는 그렇게 대륙을 변화시켰다. 웅혼한 기상과 그 기상을 서정적으로 승화시킨 심미적인 감각은 오늘날의 정율성과 음악을 낳은 것이다.

## 불로동 생가 등 중국 관광객 방문 해마다 증가 문화전당·양림동·화순 등 연계 상품 개발 시급 지자체 공동 기념사업·기념관 건립 추진 고무적

불러던 그는 광주 최초의 세례교인이자 역시 광주 최초의 한국인 목사이기도 했다. (중략) 정해업의 가족 또한 어떤 형태로든 최흥중의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이중환, ‘정율성 평전’, 2006, 지식산업사)

정율성이 유년을 보낸 양림동은 광주에서도 서양문물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었다. 그는 송일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자질을 보였던 모양이다. 더욱이 그의 누나 정봉은이 한때 수피아여고 음악 교사를 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큰 외삼촌 최흥중 목사 집에는 축음기가 있어, 정율성이 동서양의 음악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1929년 송일학교를 졸업한 정율성은 전주에 있는 미션스쿨 신흥중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신흥중은 전주의 3·1운동을 주도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만큼 민족 교육의 산실이었다. 정율성은 20세 되던 1933년 셋째형을 따라 중국 상해로 건너간다. 당시 상해는 우리의 항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항일단체의 조선혁명군 사정지 간부학교에 입교해 교육을 받는다.

정율성 생가가 빛고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뒤로 중국 관광객 방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근대문화가 숨 쉬는 양림동 일대 그리고 생가가 있는 불로동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이유다. 그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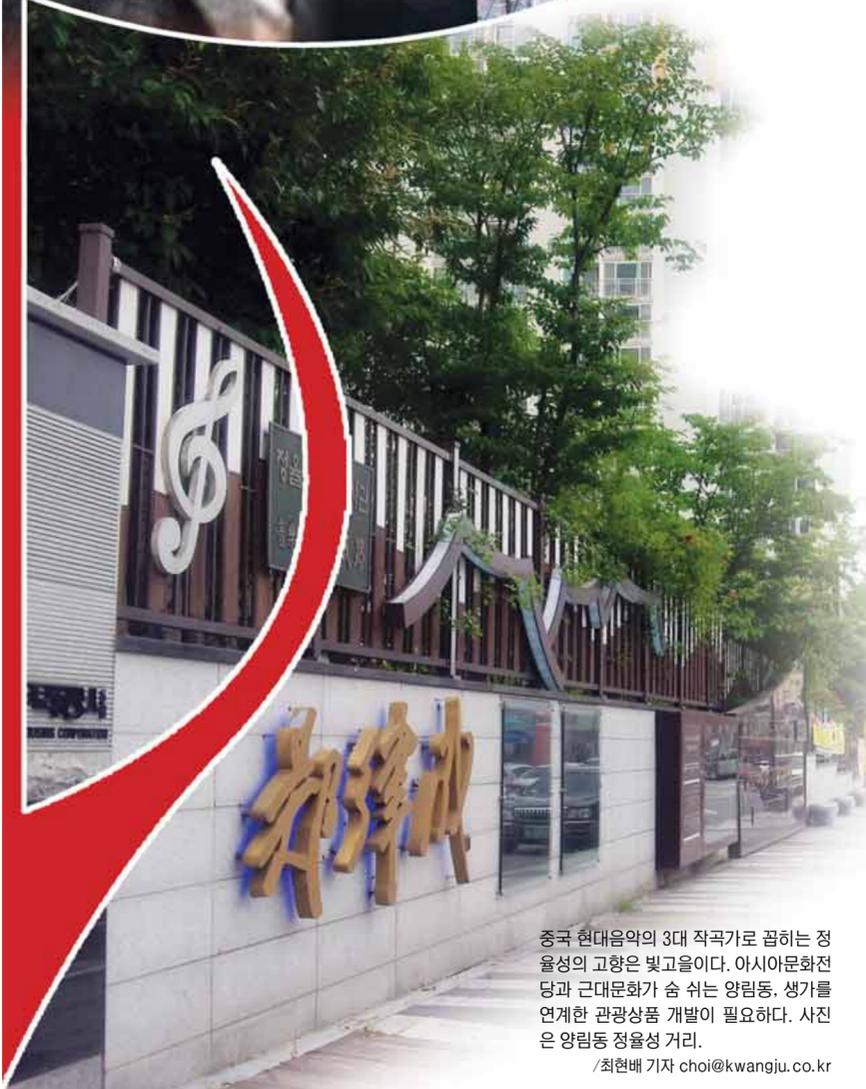
아니다. 삼국지 적벽보다 아름다운 화순 적벽,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사당이 있는 화순 주자당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작년에는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정율성 음악축제 음악공연이 열렸다. 그의 음악을 조명하고 광주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였다. 매년 광주에서 개최됐던 음악공연이 장소를 옮겨 음악이 태동된 대륙에서 펼쳐졌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정율성과 관련된 지자체가 기념사업 추진위를 출범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광주동구와 남구 화순군은 생가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로동 생가 표지석, 양림동 정율성 거리, 화순 능주중등학교 정율성 교실 등을 보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념사업 추진위는 정율성 기념관 건립 방안도 추진한다. 정율성의 음악을 기리는 국내외 문화교류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시너지효과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중국 현대음악의 3대 작곡가로 꼽히는 정율성의 고향은 빛고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근대문화가 숨 쉬는 양림동, 생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사진은 양림동 정율성 거리.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소파 식탁 대전

빅세일 + 타사상품 보상판매 3월 28일 까지

SINCE1990 **홍스케이스** ☎1899-0240 **30% 이상 ↓** 국내 최저가 판매, 매주 신상품 010.2564.7566